

大學의 葛藤과 自生力



西江大 總長 朴 弘

인간에 대한 진리와 세상에 대한 진리, 특수 분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여 그 열매를 맺고 인간과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 바로 대학 공동체이다.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볼 때 인간 속에 있는 온갖 욕구와 문제들 그리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가장 격렬하게 표출되는 곳이 또한 바로 대학 사회요 노동 사회임을 경험하고 있다. 최후판과 화염병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치고 자주와 민주를 외치며 동시에 반자주·비민주적 방법으로 이익과 권리를 강요하는 가장 비지성적인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구악을 벗고 새 질서로 넘어가는, 타율에서 자율로, 억압과 압박에서 해방으로, 군사문화에서 시민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진통과 혼란을 대학인들은 몸소 겪고 있다.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인간의 양면성을 대학 캠퍼스에서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학문적으로 응전하며 그 해답을 찾아내는 大學의 自生力은 어떠한지 자성해 볼 때 대학은 그것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이며 마치 중병을 앓고도 죽지 않고 겨우 살아서 허우적거리는 환자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 같다. 대학은 자생력을 스스로 회복하여 몸소 체험하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즉 스스로 人間化·民主化가 되어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인간화와 민주화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킨 獨裁的 劃一化의 외부적 원인과 이에 길들여진 대학인들의 축적된 奴隸的·機會主義의 내적 원인이 결합되어 과거와 싸우면서 현재를 부수는 자학적 또는 타학적 愚를 범하는 행위들을 보게 된다. 대학의 구성원들인 교수·학생·직원들을 볼 때 각각 자기 주체성과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願意 발산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다. 당면한 현실을 볼 때 대학이 어떻게 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실천하지도 못하는 인간화·민주화를 사회로 향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대학인 모두가 지금 있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학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해 몇 가지의 실마리를 넋두리 삼아 제안한다.

첫째로 대학인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듯이 정부는 大學敎育의 財政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사람을 만드는 일에 아무리 투자하여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해 주기 바라며, 또한 각 대학 전문인들에게 대학의 일을 믿고 맡기기 바란다. 대학이 스스로 自生力을 회복하도록 대학이 요청하여 온 제도적 후원을 빨리 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학의 내부적인 일로써 대학인들끼리 상대방을 귀한 人格者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상호 이해와 상호 협조가 교수·학생·직원간에 생길 것이다. 보직 교수들은 그 직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존재 이유를 늘 명심하고 權威主義의 태도를 버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본질을 위해 각 과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더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돕고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소리를 깊이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두려워말고 내 자식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진실되게 믿고 대하는 인격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비록 학생들이 교수를 배신해도 교수들은 학생을 배신하지 않는 태도, 가르치기만 하는 태도보다 함께 배우는 태도를 가질 때 참된 존중과 권위가 따라 올 것이다. 그리고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중히 여기는 한국인들, 특히 학생들은 교수들의 해박한 지식 전달에서보다 인격적 행동을 보고 마음 속으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어주고 사랑해 주기를 목말라 하고 있다. 밖으로 표출되는 거친 행동 양식 뒤에 있는 존재 양식 한 가운데에 이 사랑과 믿음을 갈망하고 절규하며 대학 교수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학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하며 개방하는 것을 학교 당국이나 교수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參與하면서 그들은 배운다.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대학의 재정, 학사, 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참여를 통해 알 때, 학교의 문제들을 함께 걱정하고 이해하며 협조하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가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모든 갈등과 진통은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진리와 이해를, 전문 분야 공부에 대해 더 깊은 맛을 깨닫게 되는 '자람의 아픔'이 될 것이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늘 시작되는 학생 운동의 이슈들은 올해도 5공 비리 척결, 민주화, 학원 자주화, 민족 통일과 찢어진 민족 동일성 회복, 반전, 반핵, 반미 등등이 예상되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보다 그 문제들에 대하여 그것들의 해답을 연구와 참여로 얻고 찾으려는 자세와 태도를 대학인들이 취할 때 참된 연구와 해답을 역으로 얻게 될 것이다. 대학의 시대적 사명도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대학 구성원들의 새로운 관계와 질서도 이러한 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과거와 싸우면서 현재를 부수는 罫를 범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새로운 질서가 대학 현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와 미래를 보는 태도를 바꾸는 선택을 인간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